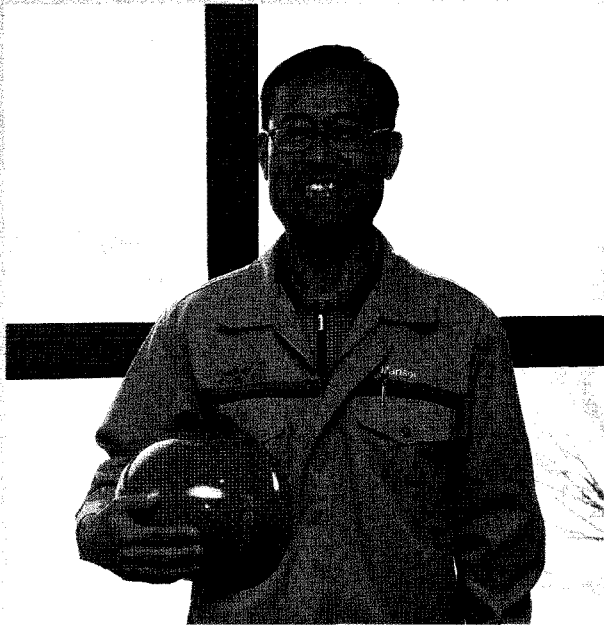


‘안전’은 근로자를 사랑하는 일

한솔홈데코 익산공장 박영수 과장

취재·사진 | 김성대 기자(glsu002@safety.or.kr)



안전 업무는 상당 수준의 공학관련 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분야다. 때문에 기술직이나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유능한 안전인 중에는 인문사회계열 출신이 극히 드물다.

한솔홈데코 익산공장의 박영수 과장이 바로 이런 드문 케이스 중의 하나다. 그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인사총무파트를 담당하다 뒤늦게 안전업무를 맡았다. 안전은 케링 기계와 산업현장도 잘 모르던 그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열정으로 한솔홈데코 익산공장을 우수 안전 사업장의 반열에 당당히 올려놓았다. 또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까지 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자신은 천상 안전인 자격을 타고났던 것 같다”고 웃음 지으며 말하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예기치 못한 '안전' 과의 만남

성장 일변도의 고속 행진을 거듭하던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사상초유의 IMF 위기가 터진 것. 이 거대한 태풍에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연이어 휘청거렸고, MDF와 강화마루, 제재목 생산기업 중에선 손꼽히는 곳이었던 한솔홈데코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안전환경부서는 총무부서로 흡수 통합됐다. 이 과정에서 박영수 과장은 갑작스레 안전업무를 맡게 됐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안전과는 거리가 먼 교육학을 전공했고, 입사 후에도 총무·인사쪽 업무만을 했던 그였다.

대학시절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했을 뿐, 그 뒤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이었다. '법적인 사항을 다루는 업무인데 잘못되면 큰일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들었다. 이런 걱정과 고민을 거듭하던 중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한 번 도전이나 해보자는 욕심이 생겼다.

안전관리자와 근로자는 '가족'

안전관리를 하려면 기계를 알고 법을 알아야 했다.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법전을 앞에 놓고 고사공부를 하는 사람처럼 공부를 했다. 또 현장에 나가면 근로자들을 붙잡고, 설비의 이름과 역할을 물어 보았다.

이런 노력이 하루 이틀을 넘어 수개월간 계속되자 그는 자연스럽게 안전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선물도 얻을 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직원들과의 친밀함이었다. 귀찮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질문을 쏟아 부으니 안 친해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직원들과의 교류는 향후 업무를 펼침에 있어 큰 도움이 됐다. 근로자들은 그의 말을 딱딱한 조언이나 충고가 아닌 마치 가족이 전해주는 진심어린 걱정으로 받아들였다.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들을 통제하고 단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근로자를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안전관리자가 내 가족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다가가 설 때 근로자들은 안전을 이해하고, 참여합니다"

나의 초심은 변하지 않는다

박 과장은 '안전은 실천이다', '안전은 습관이다' 라는 두 가지 신념을 되새기고 늘 업무에 임했다. 실천하지 않는 안전과 습관화되지 않은 안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이에 기반을 두고 그는 신입사원의 안전교육부터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또 목재의 취급이 많아 화재 위험이 높은 현장의 특성을 감안, 각 설비별 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해 안전장치를 완비한 것은 물론 이에 맞춘 비상시 나리오도 만들어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내 각종 벨트류가 많아 협착의 위험이 높은 점도 반영해 모든 콘베이어벨트에 비상정지장치(로프식)를 부착하는 등 설비로 인한 사고의 위험도 원천봉쇄했다.

이밖에 그는 익산지역 관내 사업장 23곳이 가입·활동하고 있는 익산지역안전보건협의회 회장직도 맡아 지역의 산재예방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우수한 안전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박 과장은 올해 익산공장의 안전활동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혹시 모를 매너리즘을 예방하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이처럼 열정 가득한 안전관리자가 있는 한솔홈데코 익산공장의 무재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